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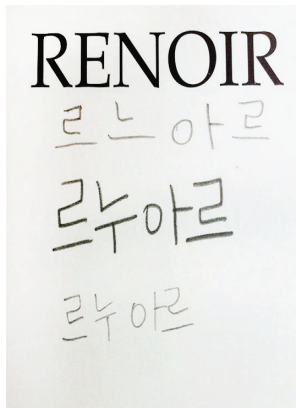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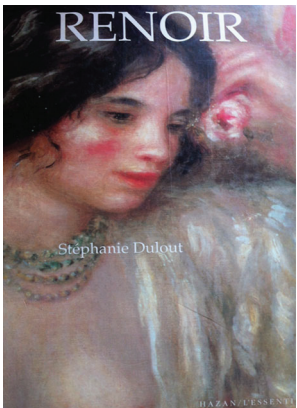
자기소개서

Corridor
A DETROIT
CLAS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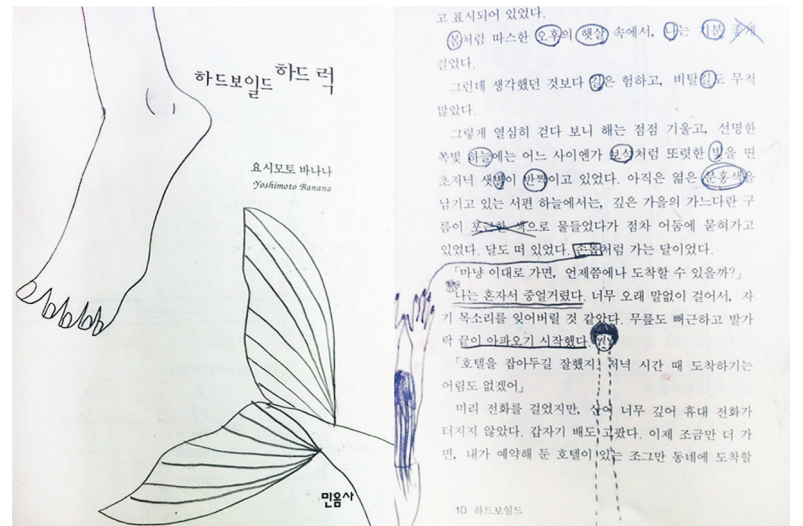


준비된 예술가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언니의 옷을 몰려 입으며 자매간의 끈끈한 사랑을 친환경적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관계로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지만, 주말 에는 꼭 부모님과 서점과 전시회를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셨던 할머니는 손녀인 저를 매일 다양한 색과 패턴의 드레스와 머리, 그 보다 더 화려한 악세서리로 저를 꾸며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부모님과 살면서, 윗 어른을 공경하는 법과 예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부터 꼭 화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제가 꼭 화가가 되었다고 다짐 한 때는 어머니와 르누아르의 전시회에 간 뒤 첫 화집을 갖게 되었을 때 입니다. 그 당시 저의 나이는 6살 이었는데, 르누아르라는 이름을 외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1. 교양있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승마 수업 중
2. 사실 저 드레스는 언니의 것이었나보다. 딸기를 아무지게 먹는 나의 손 끝에서 복잡한 엄무도 아무지게 할 수 있음을 유추해낼 수 있다.
3. 나는 아직까지 비둘기를 정말 싫어한다.
4. 르누아르라는 네글자를 외우지 못해, 의사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하지만 나를 예술인으로 만든 르누아르의 화집.
5. 첫번째는 유치원 때 쓴 것이고, 두번째는 아마도 중학교 때, 마지막은 24세때 쓴 것이다. 다시 중학교 때 처럼 글씨를 잘 쓰고 싶다.
6. 질풍노도와 예술혼이 불타던 17세의 독서법. 첫장을 보는 순간 발가락 근육의 경직을 느꼈다.
7. 역시, 그 무렵 제작한 책이다. 어린 나이에도 누드를 그리며, '나는 정말 쿨한 예술가다' 라고 생각했었다. 이 책의 내용 역시 굉장히 심오하다. 멀리 떨어진 소년과 소녀가 종이컵전화를 하는 내용. 아프리카, 우주, 심해, 하와이를 거쳐 동화를 한다. 아코디언 폴드와 실의 조화가 참신하지만, 솔직히 이 책 역시 나의 발가락들은 안쪽으로 구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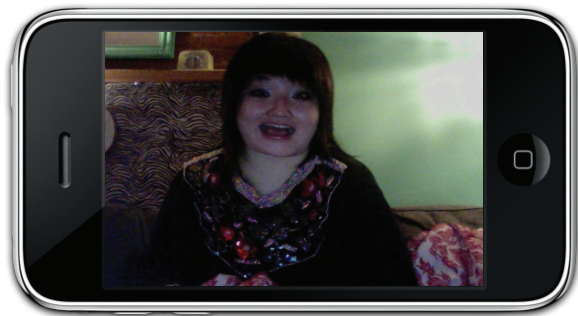
고 표시되어 있었다.
 ①처럼 마스한 ②쪽의 ③속에서, ④는 ⑤로
 걸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⑥은 험하고, 비밀⑦도 무척
 많았다.
 그렇게 열심히 건다 보니 해는 점점 기울고, 선명한
 쪽빛 ⑧에는 어느 사이엔가 ⑨처럼 또렷한 ⑩을 띤
 초지근 셋방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직은 옅은 ⑪를
 남기고 있는 시편 하늘에서는, 깊은 가을의 가느다란 구
 름이 ⑫로 물들었다가 점차 어둠에 묻혀가고
 있었다. 달도 떠 있었다. ⑬처럼 가는 달이었다.
 「마냥 이대로 가면, 언제쯤에나 도착할 수 있을까?」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너무 오래 말없이 걸어서, 자
 기 목소리를 잊어버릴 것 같았다. 무릎도 빠근하고 발가
 락 끝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호텔을 잡아두길 잘했지! 천덕 시간 때 도착하기는
 어렵도 없겠어」
 미리 전화를 걸었지만, 삼이 너무 깊어 휴대 전화가
 터지지 않았다. 갑자기 배도 고파왔다. 이제 조금만 더 가
 면, 내가 예약해 둔 호텔이 있는 조그만 동네에 도착할

PROS & CONS



CONS

01. **건망증**이 있지만,
아이폰도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이 제 건망증을 커버해 줍니다!
02. **오랜된 물건에 집착** 하지만,
요즘에는 빈티지가 트렌드입니다!
03. **공상**을 좋아해 가끔 뜬금 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뜬금 없는 이야기에서 멋진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PROS

01. **나이, 국적을 초월한 사교성** 중 3때부터 유학을 시작했지만, 부모님이 오신건 고등학교 졸업 때 뿐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반얀트리 부모님들과도, 패션위크 때 만난 까칠한 중년 게이 프랑스 기자와도, 디트로이트에서 만난 친절한 노숙자 아저씨와도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교성은 저의 큰 장점이 자랑입니다.
02. **멀티 태스킹의 달인** 제가 다닌 학교의 커리큘럼은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제의 노예로 살면서도, 친구들과 전시회나 파티 등을 계획하며 항상 바쁘게 살았습니다.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가지에 몰두하는 것 보다는 여러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03. **열정적 생활** 과제도, 일도, 노는 것도 저는 항상 모든걸 바쳐서 후회하지 않도록 합니다. 반얀트리에서 일을 하던 시절에도, 처음에는 영어선생님으로 취직이 되었지만, 열정적으로 일을하여, 어린이 파티와 이벤트 담당에서, 결국에는 캠프의 캡틴이 되어 캠프에 관한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주어진 일에 관해서는 마치 맞먹느리처럼 야무지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의 펍크!
04. **리서치의 달인**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리서치와 아이디어 보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노하우가 생겨, 원하는 이 이미지를 고화질로 찾는 것에 관해서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05. **빠른 이해력** 저는 클라이언트들이 무엇을 말하고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력이 좋습니다.
06. **다양한 분야의 깨알같은 지식** 여러가지 일에 호기심이 많은 성격상 저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하여 배우고, 연구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만큼 깨알같은 잔치식들이 많습니다.
07. **원어민수준의 영어실력**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의 모든 것을 흡수하기 위해 미국인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통역과 번역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사람들이 정말 쓰는 일상용어와 유머 까지 숙지하고 있습니다. 뉴요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08. **소녀의 감성과 소년의 성격** 모든 소녀가 그렇듯이 저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들과 귀여운 것들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저의 성격은 소년에 더 가깝습니다. 가쉽을 싫어하며, 뒷말이 없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으면 최대 30분간 분개하고 잊어버리는게 저의 장점아닌 장점입니다. 또한 뉴욕의 입맛과 청국장 소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련미 있지만, 주말에는 생청국장을 만들고 술의 눈이나 순대국을 사랑하는 구수한 여자입니다.
09. **빠른 적응력** 저의 사교성과 융화력은 제 적응력의 윤활유입니다. 동묘에서는 할머니들과, 리움에서는 사모님들과, 홍대에서는 동생들과 즐겁게 노는 저입니다.
10. **밤새면 생기는 조증과 집중력** 디자이너란, 밤을 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을 새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부족할수록 헛웃음과 집중력이 늘어납니다. 저의 이런 해피 바이러스로, 즐거운 야근을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11. **폭발적 아이디어** 저의 산만함과, 호기심이 합쳐지면 아이디어로 변합니다. 항상 여러가지 생각과 얹지만 넓은 지식을 가진 저는 마르지 않는 아이디어의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가 쓰이지 않아도 똥해있기 보다는 대체의 아이디어를 내는 편입니다.
12. **그룹 프로젝트 매니아** 저는 저의 모자란 점과 부족한 점에대해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작업을 할 때에, 나의 강점과 단점을 말하여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봅니다.

WHY YOU SHOULD HIRE ME

나는 당신의 스위스칼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작가는 밀튼 글레이저입니다. 매번 바뀌는 화풍과 어렵지 않은 그림들이 참 멋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 역시 여러가지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은 물론 웹코딩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판화와 페인팅 기법도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위스칼처럼 여러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력이 빠릅니다.

반얀트리에서 파티플래너로 일하는 동안, 파티 초대장 디자인과 관련하여 여러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꼬르소 꼬모같이 심플한 디자인인데, 저희 아이는 뽀로로를 좋아하니깐 뽀로로는 넣는데, 유치하지는 않게 만들어 주세요' 라는 파격적인 부탁도 들어드려야 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들이었지만, 클라이언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창의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한국의 민화부터 마크 로스코의 페인팅들까지, 다양한 정신 질환에서 부터 옛날 서커스단 사진 까지, 제 작품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연구합니다! 연구도 자꾸 하다보니 빠른 시간안에 필요한 정보만 유추해내는 방법도 터득하였습니다. 이런 지식들이 모여 제가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는 당당하게 제가 창의적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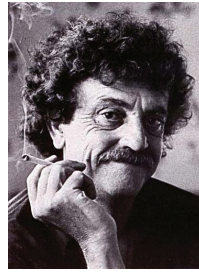
그림 공부를 마치고, 그림만으로는 제가 잘 할수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없다는걸 느끼고 바로 광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장점을 최대화 시켜 노력하겠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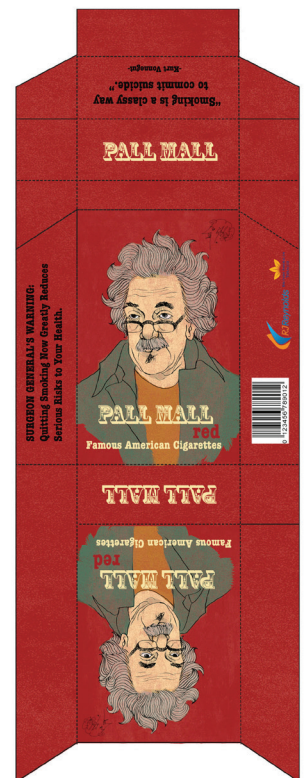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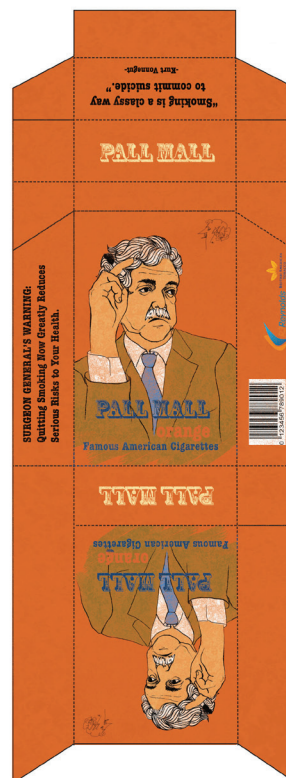
Famous American Bl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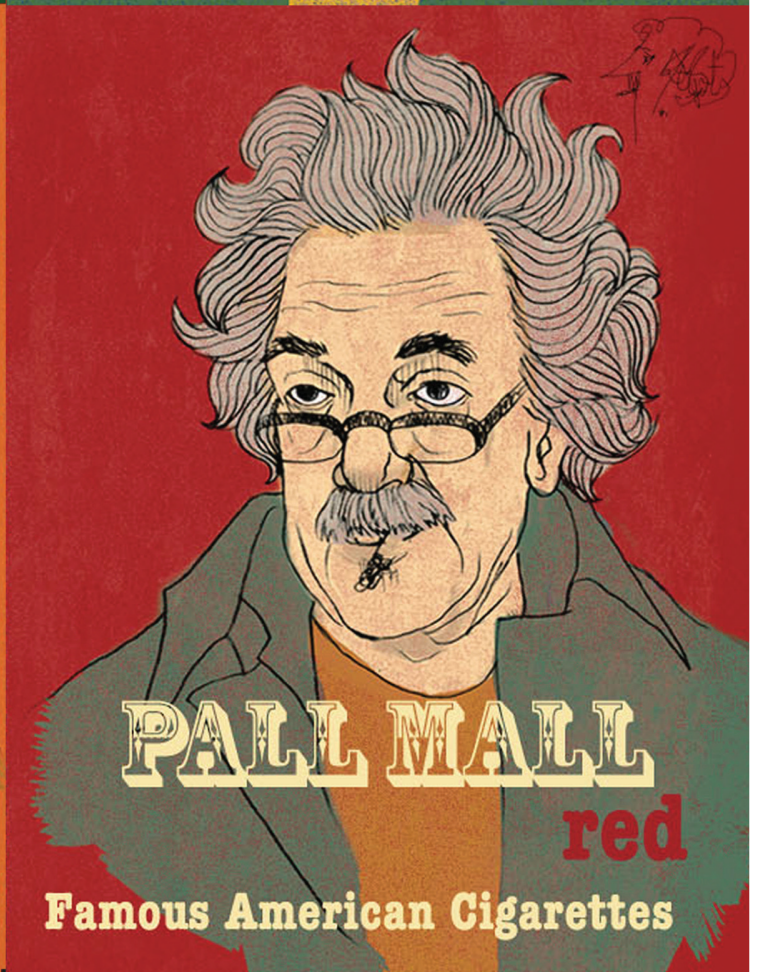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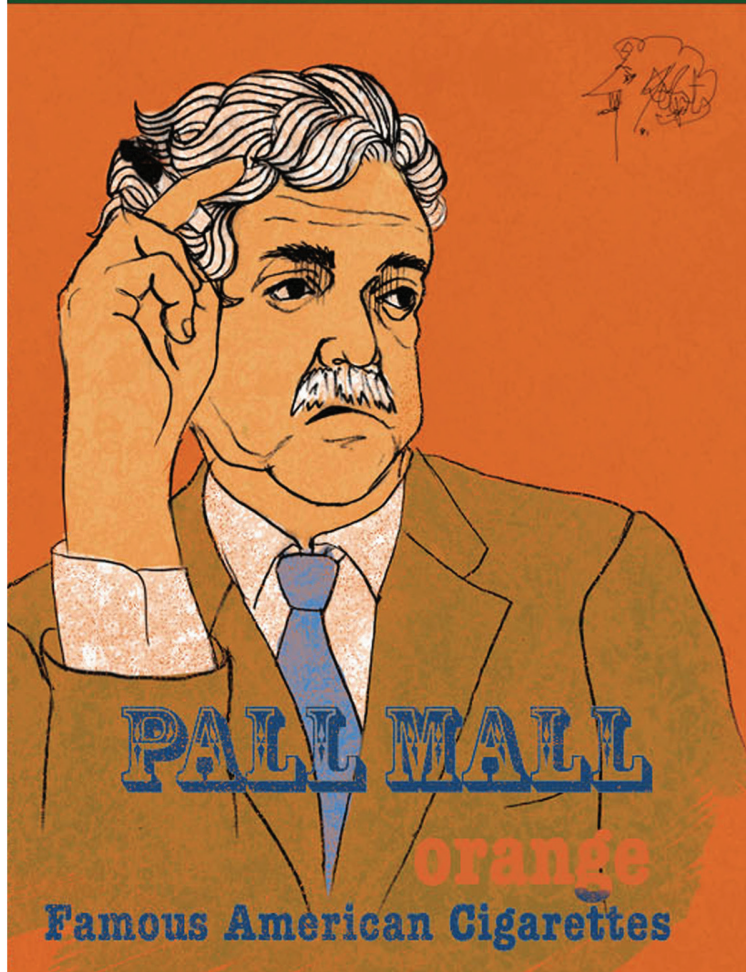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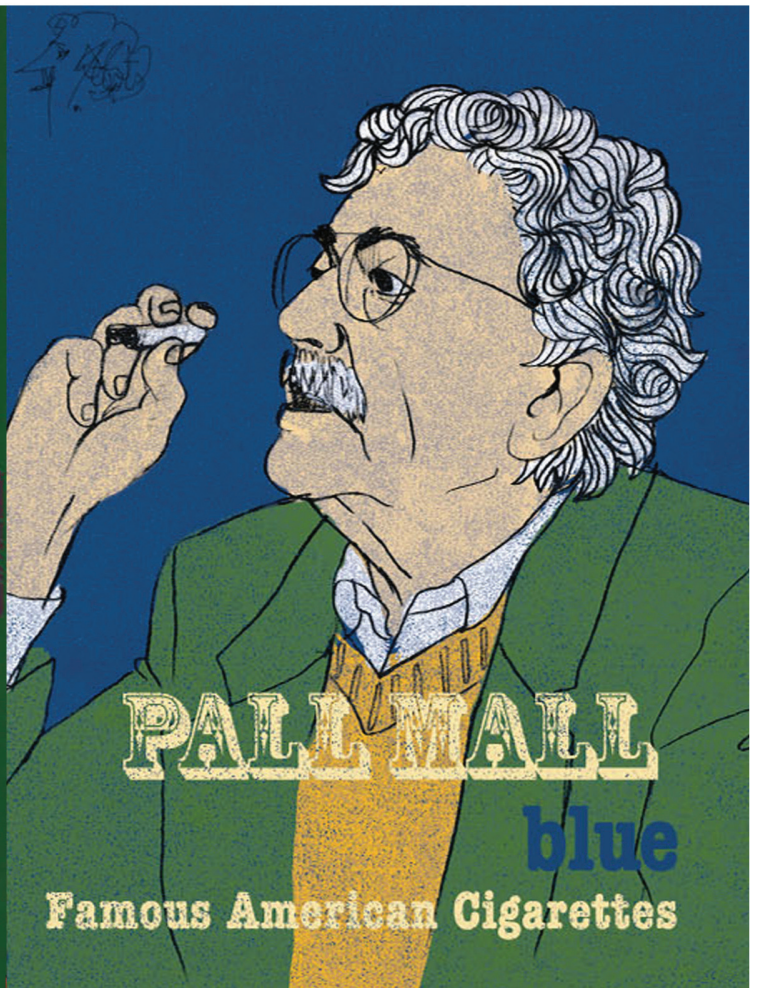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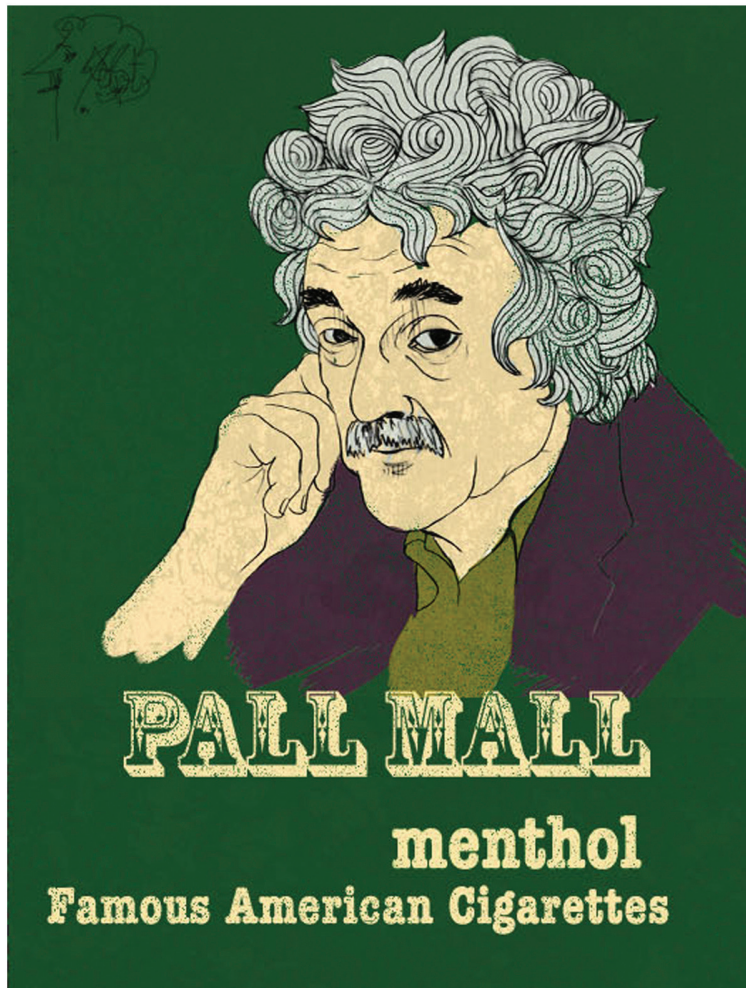
Pall Mall은 미국 전통의 담배 브랜드입니다. 6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역사 깊은 담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다른 담배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주 고객층을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성인으로 잡고, Pall Mall의 오래되고, 저렴해 보이는 이미지를, 젊고, 재치있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KURT VONNEGUT + BROKE ASS HIPSTERS

Pall Mall에 관한 리서치를 하던 중 미국의 작가인 커트 보네겟이 Pall Mall 애호가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보네겟은 젊은 힙스터들이 좋아하는 사회 풍자 작가로, 그의 책에는 담배에 관한 이야기도 꽤 있었습니다. “smoking is a classy way to commit suicide”라는 문구는 아이러니하지만, 귀여운 경고문으로 완벽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팝아트적으로 하였습니다.







Mind Freaks, 2012, Digital



Mind Freaks, 2012, Digital

AMERIC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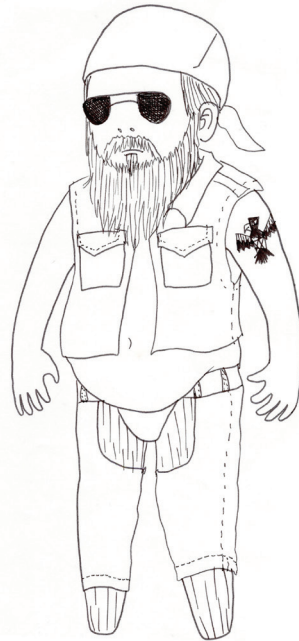
A COLORING BOOK OF AMERICAN SUBCULTURES



C
IS
FOR
CLUB KIDS



B **IS** **FOR** **BIKERS**



L
IS
FOR
LEATHER
DADDIES



S
IS **FOR**
SEA PUNKS



THE EFFECT OF MOOSEJAW T-SHIRTS



PRE-MOOSEJAW:
THIS MOOSE HAS NO WILLPOWER.



POST-MOOSEJAW:
THIS MOOSE HAS REACHED NIRVANA.

Moosejaw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2012년 4월경 저의 학교 와 Alchemy Challenge라는 이름으로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을 한 뒤 선택된 학생들에 한하여, 소비자들의 투표로 선정된 디자인이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Moosejaw는 아웃도어 브랜드이며, 주 고객층은 30대 중반의 트렌디한 사람들입니다.

저의 아이디어는 Moosejaw 티셔츠의 영향이라는 이름으로, 홈쇼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약간은 억지스럽고 말도 안되지만, 이 브랜드의 티셔츠를 입기 전에는 의지력 부족해져,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지만, Moosejaw의 티셔츠를 입게 된다면, 해탈의 경지에 오를 만큼 건강해진다는 컨셉으로 재미있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이디어는 최종후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CCS Alchemy Challenge | Hailey Choi

Much like **Alchemy**, **Moosejaw's** private label is all about turning base metals into noble metals. We've partnered with a talented group of students ...

by MoosejawMadness | 4 weeks ago | 210 views

1. Choose your favorite 4 students to move onto the next round.

[Create Chart](#) [Download](#)

		Response Percent	Response Count
Backpack Girl by Danielle Styles		58.0%	778
Fast Food by Hailey Choi		46.9%	629
MooseBear by Frank Zerilli		41.2%	553
ByLaw Tee by Bethany Radloff		38.3%	514
Baby Onesies by Lauren Hilliker		61.6%	826
Morning Commute by Noah Lavallee		41.1%	551
Download Nature by Jennifer Choi		58.8%	788
Rebound by Karli Cooper		54.1%	725
		answered question	1,341
		skipped question	0



Madd-moiselle series. 2012, acrylic on wood

Latelly..



Moss Attack 시리즈

최근 인터넷 서핑 중 이끼로 그래피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서울에 재활용 마크로 도배 할 예정입니다. 아무 차가워 보이는 콘크리트 빌딩도 자연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뱅크시가 아니며, 취업이 된다면 일을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여러 기업들과 서울시의 도움을 받을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와 이야기 중 입니다.



도서관 시리즈

최근 작업 중인 도서관 시리즈는, 두가지 파트로 나뉘어 집니다. 도서관에 가서, 오래된 책을 빌려 읽습니다. 독서 후 책의 내용과 대출카드에 적힌 이름 중 하나를 골라, 책의 내용과 이름을 기반으로 이 이름을 가진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지 유추해내어 초상화를 그립니다. 책의 장르는 요리책부터, 심리학책, 삼류 로맨스 소설 까지 다양하게 읽을 예정입니다.



사이사이 프로젝트

졸업 후 귀국한 뒤 이태원을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사이사이 프로젝트라는 아름다운 분홍빛 포스터를 보게되었습니다. 한국에 아는 미술가가 몇 없는 관계로 네트워킹에 참 좋겠다라는 생각과, 과연 나의 괴짜스러운 그림들을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여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 아트스트 마켓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림도 3개 팔고, 멋진 미술가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